

40 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그 투쟁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 때문에
정당하다고 믿는 대의를 지지하는 데서 물러 서서는 안된다.

-A. 링컨

양to the치기 40일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노동을 제공하면 으레 그에 합당한 크기의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 만족을 경험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불만족을 경험한다. 그런데 자신이 받은 보상의 크기가 합당한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이 바로 ‘공정성’이다. 공정성은 크게 ‘배분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기업의 이윤에서 임금으로 얼마를 배분받느냐가 ‘배분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면, 얼마의 임금을 배분받을지 결정되기까지의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는 ‘절차 공정성’의 문제이다.

배분 공정성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 업적 등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보상이 합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타인이 받은 보상과 비교를 한다. 이에 대해 공정성 이론을 주창했던 아담 스는 다음의 산술식을 활용해 설명했다.

$$\frac{\text{산출}(P)}{\text{투입}(P)} = \frac{\text{산출}(O)}{\text{투입}(O)} \quad (P=\text{자신}, O=\text{타인})$$

이 산술식에서 ‘투입’은 개인의 노력, 업적, 기술, 연령, 교육, 경험 등을 가리키며, ‘산출’은 조직이 개인에게 주는 보상으로 임금, 후생 복지, 승진, 지위, 권력 등을 포함한다. 아담 스는 개인이 이러한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타인과 비교해 그 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을 지각해 자신이 배분받은 것에 만족하는 반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불공정성을 지각해 불만이나 죄책감을 느낀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공정성과 불공정성의 지각은 개인의 동기 부여에 영향을 미친다.

배분 공정성은 ‘내부 공정성’과 ‘외부 공정성’으로 구분된다. 내부 공정성은 조직 내부의 공정성으로 조직의 직무·직능·근속 및 성과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는 제도를 잘 갖추으로써 공정성을 유지·확보하는 것이다. 내부 공정성의 확보는 개인의 만족과 그로 인한 업무 효율성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부 공정성은 해당 조직의 구성원이 받는 보상 수준이 다른 조직의 구성원이 받는 보상 수준에 비해 공정한가에 관한 것이다. 외부 공정성의 확보는 조직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절차가 공정했는지에 관한 ㉠ 절차 공정성은 배분 공정성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면 그 결정에 대한 사람들의 수용성이 높아진다. 절차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상 수준의 결정에 활용되는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고충 처리 절차나 이의 제기 절차가 있어 오류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배분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배분을 통해 보상을 받는 개인들의 윤리·도덕 기준에 부합되게 이루어지면 절차 공정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배분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지각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행동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1. 윗글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투입에 비해 산출이 클수록 ‘배분 공정성’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 ②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타인과 비교해 ‘배분 공정성’을 지각할 수 있다.
- ③ 자신의 보상이 합당한지를 판단할 때 ‘공정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 ④ 구성원의 ‘공정성’에 대한 지각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관련이 있다.
- ⑤ ‘외부 공정성’은 조직의 인력 수급과 대외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윗글로 보아, <보기>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ㄱ은행과 ㄴ은행에 동시에 합격한 Y씨는 동일한 일을 해도 ㄴ은행이 ㄱ은행보다 평균 임금이 높고 후생 복지도 좋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ㄱ은행에 입사했다. ㄱ은행이 ㄴ은행보다 선진화된 인사 고과 시스템을 갖추어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성과에 대한 보상제도가 ㄴ은행보다 잘 갖추어져 있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속 연수와 상관없이 승진을 시켜주기 때문이었다.

- ① 직원들의 평균 임금과 후생 복지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ㄴ은행보다 ㄱ은행의 ‘외부 공정성’이 더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할 것 같다.
- ② 성과에 대한 보상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ㄱ은행보다 ㄴ은행의 ‘내부 공정성’이 더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 ③ Y씨가 ㄱ은행을 선택한 것은 평균 임금보다 후생 복지를 더 중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
- ④ ㄱ은행은 선진화된 시스템을 통해 업무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ㄴ은행보다 ‘절차 공정성’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⑤ Y씨가 근속 연수와 상관없는 승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해 ㄱ은행을 선택한 것은 ‘배분 공정성’보다 ‘절차 공정성’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야.

3.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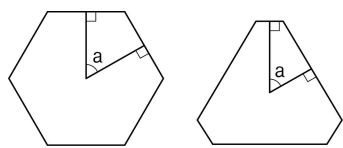
- ①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때 개인의 주관이 많이 개입된다는 말이로군.
- ② ‘배분 공정성’ 없이 ‘절차 공정성’만 확보되면, ‘공정성’ 확보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말이로군.
- ③ 개인들의 윤리·도덕 기준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배분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로군.
- ④ ‘배분 공정성’이 ‘절차 공정성’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된다는 말이로군.
- ⑤ 배분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면, 그 결정에 대해 ‘공정성’을 지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말이로군.

양to the치기 40일차

[4~7] 다음글을읽고물음에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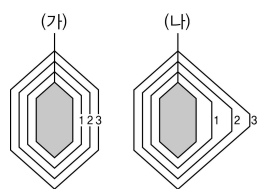
광물은 지각을 이루는 암석의 단위 물질로서 특징적인 결정 구조를 갖는다. 광물의 결정 구조는 그 광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일정하게 배열된 양상이다. 같은 광물일 경우 그 결정 구조가 동일하며, 이러한 결정 구조에 의해 나타나는 규칙적인 겹모양인 결정형(crystal form)도 동일하다. 그런데 실제로 광물들의 결정은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덴마크의 물리학자 니콜라우스 스테노는 등산길에서 채집한 수정의 단면들이 서로 조금씩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에 궁금증이 생겼다.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그는 수집한 수정의 단면도를 그려서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수정 결정의 모양은 모두 조금씩 다르지만 맞닿은 결정면들이 이루고 있는 각은 <그림1>의 a와 같이 항상 일정하다는 '면각 일정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림1> 면각 일정의 법칙

스테노는 같은 광물의 결정일 경우 면각이 일정해지는 이유가 ㉠ 결정 내부의 규칙성 때문일 것이라 짐작했다. 당시만 해도 그 규칙성의 이유가 되는 결정 내부의 원자 배열 상태를 직접 관찰할 수 없었다. 그가 죽은 뒤 X선이 발견되고 나서야, 결정 모양이 그 결정을 이루고 있는 내부 원자들의 규칙적인 배열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림2> 결정의 성장 과정(결정의 수직 단면)

그렇다면 같은 종류의 결정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형성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결정에 주입되는 물질의 공급 정도에 따라 결정면의 성장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광물의 작은 결정 두 개를, 같은 성분을 가진 용액 속에 매달아 놓았다고 하자. 이때 (가) 결정이 담긴 용액은 물질이 사방에서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나) 결정이 담긴 용액은 물질이 오른쪽에서 더 많이 공급되도록 해 놓으면 (가) 결정은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이상적인 모양을 가진 결정(이상결정)으로 성장하는 반면, (나) 결정은 기형적인 모양을 가진 결정(기형결정)으로 성장하게 된다. (나) 결정의 오른쪽 결정면은 다른 결정면들보다 성장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결정이 성장해 나갈수록 결정면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2>를 통해 설명한 바와 같이 물질의 공급 환경이 다른 곳에서 성장한 결정들은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가)와 (나)는 같은 광물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면각은 서로 같다. 이처럼 같은 광물의 결정은 그 면각이 같다는 사실을 통해 다양한 모양의 결정들의 종류를 판별할 수 있다. 면각 일정의 법칙은 광물의 결정을 판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준으로, 현대 광물학의 ㉠ 초석이 되었다.

4.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 ① 면각 일정의 법칙은 무엇인가?
- ② 면각 일정의 법칙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③ 광물별 결정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④ 결정면의 성장 속도는 결정면의 크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 ⑤ 같은 광물의 결정이 다른 모양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 ㉠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스테노는 ㉠을 추측하기는 했지만 확인하지는 못했다.
- ② 스테노는 ㉠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물리 법칙을 입증했다.
- ③ ㉠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X선이 개발되었다.
- ④ 스테노는 ㉠의 다양한 양상들을 비교하여 분류 체계를 만들어 냈다.
- ⑤ ㉠을 분석한 내용이 면각 일정의 법칙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6. 윗글을 통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어떤 광물이 성장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수평 단면을 보이는 결정이 되었다. (단, 물질 공급 이전의 결정의 초기 모양은 정육각기둥으로 가정하고, 결정의 성장 과정에서 물질 공급을 제외한 다른 요인은 배제한다.)

- ① 지금까지와 같이 물질 공급이 지속된다면, a면은 점점 좁아질 것이다.
- ② 현재의 결정 모양은 a면보다는 b면으로 물질이 더 많이 공급된 결과일 것이다.
- ③ 모든 방향에서 물질이 고르게 공급되었다면, a면과 b면의 면적은 같았을 것이다.
- ④ 현재의 결정이 더 성장하게 되더라도 a면과 b면이 이루는 각 c는 항상 같을 것이다.
- ⑤ 결정의 모양이 달라졌지만, 결정 내부의 원자 배열이 가진 규칙성은 훼손되지 않았을 것이다.

7. ㉠와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붕돌 ② 고임돌 ③ 버팀돌
- ④ 굳은돌 ⑤ 주춧돌

양to the치기 40일차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_____ [A]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_____
물살 몰아 갔다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오,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_____ [B]
푸른 은하물이 있어야 하네.

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 _____
불타는 흠뻑만이 있어야 하네!

직녀여, [여기] 번쩍이는 모래밭에 _____
돌아나는 풀썩을 나는 세이고..... [C]

허이언 허이언 구름속에서 _____
그대는 베틀에 북을 놀리게.

눈썹 같은 반달이 중천에 걸리는 _____
칠월칠석이 돌아오기까지는, [D]

검은 암소를 나는 먹이고 _____
직녀여, 그대는 비단을 짜세.

- 서정주, 「견우의 노래」 -

(나)

흙이 되기 위하여
흙으로 빚어진 그릇
언제인가 접시는
깨진다.

생애의 영광을 잔치하는
순간에
바싹 깨지는 그릇
인간은 한 번
죽는다.

물로 반죽되고 불에 그슬려서
비로소 살아 있는 흙
누구나 인간은 한 번쯤 물에 젖고
불에 탄다.

하나의 접시가 되리라
깨어져서 완성(完成)되는
저 절대(絶對)의 파멸(破滅)이 있다면,

흙이 되기 위하여
흙으로 빚어진
모순(矛盾)의 그릇.

- 오세영, 「모순의 흙」 -

8.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 ① 시상의 반전을 통해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명암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9.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A]~[D]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공간 개념인 ‘여기’는 시간적으로는 ‘지금’과, 상황적으로는 당면한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여기’에는 지금의 현실에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를 기약하는 인식과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여기’의 의미는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즉 ‘여기’를 기점으로 전반부인 1~4연에서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의미 부여가, 후반부인 5~8연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가 형상화되어 있다.

- ① [A]에는 화자가 이별이라는 현실에 부여한 의미가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② [B]에는 [A]에서 ‘여기’에 부여한 의미가 변주되어 나타나 있다.
- ③ [C]에서는 현실 상황과 미래에 대한 기약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④ [C]를 통해 ‘여기’가 화자인 견우뿐 아니라 ‘직녀’에게도 해당하는 현실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⑤ [D]는 [C]를 변주하면서 미래를 기약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0. <보기>를 토대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유추는 서로 다른 대상 사이에서 유사성을 발견하고, 그 유사성에 근거하여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는 사유 방식이다. 우리는 유추를 통해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일상적 대상에서 인간과 삶의 의미에 대해 성찰해 보게 된다.

- ① 화자는 ‘깨진다’는 대상의 속성과 ‘죽는다’는 ‘인간’의 속성을 대응시키고 있다.
- ② 화자는 대상과 유사하게 ‘인간’도 ‘물에 젖고 불에 타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③ ‘하나의 접시가 되리라’는 화자가 대상과 ‘인간’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④ 화자는 죽음을 잊고 생애에 충실한 대상에서 ‘인간’이 추구할 ‘생애의 영광’을 발견하고 있다.
- ⑤ ‘모순’은 화자가 깨닫게 된 ‘인간’과 삶에 대한 인식을 함축하고 있다.

양to the치기 40일차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 그 돈은 갚는다는 거야 안 갚을 작정야? 세도 좋은 젊은 서방을 믿고 그 떠세*루 남의 돈을 무쪽같이 떼먹으려 드나 보다마는, 김옥임이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

원체 예쁘장한 상관이기는 하면서도 쌀쌀한 편이지마는, 눈을 곤두세우고 대드는 품이 어려서부터 30년 동안을 보던 옥임이는 아니다. 전부터 “네 영감은 어찌 점점 더 젊어가니? 거기다 대면 넌 어머니 같구나.”하고 새롱새롱 놀리기도 하고, 60이 넘은 아버지 같은 영감 밑에 쓸쓸히 사는 옥임이는 은근히 부러워도 하는 눈치였지마는, 밀도 끝도 없이 ㉠ **길바닥**에서 ‘젊은 서방’을 들추어내는 것을 보고 정례 어머니는 어이가 없었다.

“늙은 영감에 넌더리가 나거든 젊은 서방 하나 또 얻으려무나.”하고, 정례 모친도 비꼬아 주고 싶었으나 열을 지어 썼는 사람들이 쳐다보며 픽픽 웃는 바람에,

“이거 미쳐나려나? 이젠 무슨 객설야.”

하고, 달래며 나무라며 끌고 가려 하였다.

“그래 내 돈을 곱게 먹겠는가 생각을 해보렴. 매달린 식솔은 많구 병들어 누운 늙은 영감의 약값이라두 뜯어 쓰려구, 이렇게 찢찢거리구 다니는, 이년의 돈을 먹겠다는 너 같은 의리가 없는 년은 옥을 좀 단단히 빼야 정신이 날 거다마는, 제 사정 보아서 싼 변리에 좋은 자국을 지시해 바친 밖에! 그것두 마다니, 남의 돈 생으루 먹자는 도둑년 같은 배짱 아니구 뭐냐?”

오고 가는 사람이 우중우중 서며 구경났다고 바라보는데, 원체 히스테리증이 있는 줄은 짐작하지마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기가 나서 대든다. 히스테리는 고사하고, 이것도 빗쟁이의 돈 받는 상투 수단인가 싶었다.

“누가 안 갚는대나? 돈두 중하지만 이게 무슨 꼬락서니냐 말이야.”

정례 어머니는 그래도 달래서 ㉡ **뒷골목**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다.

“난 돈밖에 몰라. 내일모레면 거리로 나왔게 된 년이 체면은 뭐구, **우정은 다 뭐냐?** 어쨌든 내 돈만 내놓으면 이러니저러니 너 같은 장래 대신 부인에게 나 같은 년이야 감히 말이나 붙여보려 들겠다면!”

하고 허청 나오는 코웃음을 친다. 구경꾼은 자꾸 피어드는데, 정례 모친은 생전 처음 당하는 이런 봉욕에 눈앞이 아찔하여지고 가슴이 꼭 메어 올랐으나, 언제까지 이려고 섰다가는 예서 더 무슨 창피한 꼴을 볼까 무서워서 선뜻 몸을 빼쳐 ㉢ **옆의 골**로 줄달음질을 쳐 들어갔다. 뒤에서 발소리가 없으니 옥임이는 저대로 간 모양이다. 정례 모친은 눈물이 핑 돌았다.

스물 예닐곱까지 동경 바닥에서 **신여성 운동**이네, 연애네, 어떠네 하고 멋대로 놀다가, 지금 영감의 후실로 들어앉아서, 세상 고생을 알까, 아이를 한번 낳아보았을까, 40 전의 젊은 한때를 **도지사 대감의 실내마님**으로 떠받들려 제멋대로 호강도 하여본 옥임이다. 지금도 어디가 40이 훨씬 넘은 중늙은이로 보이라. 머리를 곱게 지지고 옅은 얼굴 단장에, 번질거리는 미국제 핸드백을 착 끼고 나선 맵시가 어느 맥 유한마담이지, 설마 1할, 1할 5푼으로 아귀다툼을 하고 어려운 예전 동무를

쫓아다니며 울리는 고리대금업자로야 누가 짐작이나 할까. 해방이 되자, 고리대금이 전당국 대신으로 터놓고 하는 큰 생화*가 되었지마는, 옥임이는 반민자(反民者)의 아내가 되리라는 것을 도리어 간관으로 내세우고 부라퀴같이 덤빈 것이다. 중경도지사요, 전쟁 말기에는 무슨 군수품 회사의 취체역*인가 감사역을 지냈으니 **반민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이면, 중풍을 3년째나 누웠는 영감이, 어서 돌아가 주거나 하기 전에야 으레 걸리고 말 것이요, 걸리는 날이면 떠메어다가 징역은 시키지 않을지 모르되, 지니고 있는 집칸이며 땅 섬지기나마 **몰수를 당할** 것이니, 비록 자신은 없을망정 자기는 자기대로 살길을 차려야 하겠다고 나선 길이 이 길이였다. 상하 식솔을 혼자 떠맡고 영감의 약값을 제 손으로 벌어야 될 가련한 신세같이 우는소리를 하지마는 그래야 남의 옥을 덜 먹는 발뺨이 되는 것이다.

옥임이는 정례 모친이 혼쫓이 나서 달아나는 꼴을 그것 보라는 듯이 곁눈으로 흘겨보고 입귀를 썰룩하여 비웃으며, 버젓이 사람 틈을 헤치고 ㉣ **종로 편**으로 내려갔다. 의기양양할 것도 없지마는, 가슴속이 후련하니 머릿속이고 가슴속이고 무언지 멍치고 비비꼬이고 하던 것이 확 풀어져 스러지고 회가 제대로 도는 것 같아서 기분이 시원하다. 그러나 그 멍치고 비비 꼬인 것이라는 것이 반드시 정례 어머니에 대한 악감정은 아니었다. 옥임이가 그 오랜 동무에게 이렇다 할 감정이 있을 까닭은 없었다. 다만 아무리 요새 돈이라도 20여만 원이라는 대금을 받아 내려면 한번 혼을 단단히 내고 제독을 주어야 하겠다*고 버르기는 하였지마는, ㉤ **얼떨결에 나온**다는 말이 젊은 서방을 둔 떠세나 무어나고 한 것은 구석 없는 말이었고 지금 생각하니 우스웠다. 그러나 자기보다도 훨씬 늙어 보이고 살림에 찌든 정례 모친에게는 과분한 남편이라는 생각은 늘 하던 옥임이기는 하였다. 남의 남편을 보고 부럽다거나 샘이 나거나 하는 그런 몰상식한 옥임이도 아니지마는 자식도 없이 군식구들만 들썩거리는 집에 들어가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늙은 영감의 방을 들여다보면 공연히 짜증이 나고, 정례 어머니가 자식들을 공부시키느라고 어려운 살림에 얽매고 고생하나, 자기보다 팔자가 좋다고 생각도 나는 것이었다.

- 염상섭, 「두 파산」 -

- * 떠세: 재물이나 세력 따위를 내세워 첩제하고 역지를 쓰는 짓.
- * 생화: 먹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벌이나 직업.
- * 취체역: 주식회사의 '이사'의 옛날 말.
- * 반민법: 일제 강점기에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해방 직후에 만든 특별법.
- * 제독을 주다: 기운을 꺾어 다시 꿈쩍 못하게 하다.

11.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경의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 ② 극적인 반전을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③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을 바꾸어 인물들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를 교차 서술하여 과거에 발생한 사건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양to the치기 40일차

12. 와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옥임'은 ㉠에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지만 계속해서 '정례 모친'을 비난했다.
- ② '정례 모친'은 '옥임'을 달래 ㉡에서 대화를 나누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 ③ '정례 모친'은 구경꾼들의 시선과 '옥임'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로 향했다.
- ④ ㉠에서 표현하지 못한 '정례 모친'의 속내가 ㉢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되고 있다.
- ⑤ '옥임'은 ㉣로 향하면서 ㉠에서 '정례 모친'에게 했던 행위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13. <보기>를 통해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두 파산」은 금전적인 이해에 의해 어긋나게 되는 두 여인의 삶을 통해 정신적 파산과 경제적 파산이라는 두 가지 양상의 파산을 그려내고 있다. 그런데 작가는 개인의 문제보다는 이들의 파산을 초래한 해방 직후의 시대 현실과 사회상에 독자들이 주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① '어려서부터 30년 동안'이나 친구로 지내던 정례 모친에게 '우정은 다 뭐냐?'라고 하는 옥임의 말에서, 둘의 관계가 금전적 이해에 의해 어긋나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② 한때 '신여성 운동'에 참여하기까지 했던 옥임이 현재는 정례 모친에게 빚을 갚으라며 '난 돈밖에 몰라'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정신적 파산의 양상이 드러난다.
- ③ 옥임에게 돈을 빌리기도 갚지 못하는 정례 모친이 오히려 옥임에게 '이거 미쳐나려나?'라면서 나무라는 모습에서, 경제적 파산이 정신적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④ 옥임을 한때 '도지사 대감의 실내마님'이었다가 재산을 '물수를 당할' 처지로 설정한 것에서, 옥임의 파산이 해방 직후의 시대 현실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반민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의 상황을 틈타 친일파의 아내였던 옥임이 고리대금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해방 직후의 사회상을 알 수 있다.

14. ㉠에 대해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옥에도 티가 있다'더니 정례 모친의 삶이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군.
- ② '목구멍이 포도청'인데도 옥임은 한가하게 남의 걱정이나 하고 있군.
- ③ '제 눈에 물대기'라더니 옥임은 남의 사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군.
- ④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더니 옥임은 그동안 정례 모친에게 하려고 준비해 왔던 말을 실컷 한 것이군.
- 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더니 집안의 일로 짜증이 난 옥임이 정례 모친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군.

[15~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리고 성근 매화(梅花) 너를 밋지 안얏더니
 눈 기약(期約) 능(能)히 직켜 두세 송이 푸엿구나
 축(燭) 잡고 갓가이 사랑홀제 암향부동* 흐더라 <제2수>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이 향기(香氣) 노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期約)하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흐노라 <제3수>

눈으로 기약(期約)터니 네 과연(果然) 푸엿고나
 황혼(黃昏)에 달이 오니 그림즈도 성기거다
 청향(清香)이 잔(盞)에 췌스니 취(醉)코 놀너 흐노라 <제4수>

황혼(黃昏)의 돛는 달이 너와 기약(期約) 두엇더냐
 합리(閣裡)*의 즈든 쫓치 향기 노아 맞는고야
 닉 엇지 매월(梅月)이 벗 되는 줄 몰났던고 흐노라 <제5수>

- 안민영, 「매화사」 -

* 암향부동: 그윽한 향기가 은근히 떠돌.
 * 합리: 방 안.

1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② 대상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영탄적 표현으로 화자의 감흥을 표출하고 있다.
- ④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얻고 있다.

1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매화사」는 8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이다. 연시조에는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각 수를 통합하는 구성 원리가 있다. 이 작품의 경우 매화를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진다. 매화가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의 행위나 '눈', '달'과 같은 다른 자연물과의 조응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 ① <제2수>에서 화자는 '어리고 성근 매화'가 꽃을 '두세 송이' 피운 것을 '눈'과의 기약을 지킨 결과라고 여기고 있다.
- ② <제2수>에서 화자가 '축 잡고 갓가이 사랑'하는 행위에 매화가 향기를 내어 조응하고 있다.
- ③ <제3수>에서 '눈'과 '달'의 조응이 이루어진 후에야 화자와 '매화' 사이에도 조응이 일어나고 있다.
- ④ <제4수>에서 '달'이 뜨자 매화가 '그림즈'를 나타내고, 화자의 '잔'에도 매화의 '청향'이 차오르고 있다.
- ⑤ <제5수>에서 화자는 '합리의 즈든' 매화가 일어나 향기를 내는 것은 '황혼의 돛는 달'을 맞이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해석

- ①④⑤③①
 ②⑤④③④
 ④④③⑤④
 ③

[1~3] (사회) 이달휴, '노동법상 임금 결정 원칙'

이 글은 공정성의 의미를 배분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3문단에서는 아담스가 주창한 공정성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개인이 자신의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타인과 비교해 그 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을 지각해 자신이 배분받은 것에 만족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공정성을 지각해 불만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즉, 공정성이란 자신의 산출이 클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 타인의 투입과 산출의 비율과 같을 때 확보되는 것이다.

2. [출제의도] 글의 핵심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한다.

5문단에 따르면, 배분 공정성과 관련하여 배분에 대한 결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보상 수준의 결정에 활용되는 정보가 정확해야 한다. <보기>에서는 ㄱ 은행이 ㄴ 은행과 달리, 선진화된 인사 고과 시스템을 갖추어 직원들의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ㄱ 은행이 절차 공정성을 더 많이 확보한 것으로 본 ④가 적절하다.

3. [출제의도] 문맥을 고려하여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절차 공정성이 배분 공정성의 전제가 된다는 말은 배분 공정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차 공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차 공정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배분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면, 공정성이 확보되므로 그 결정에 대한 공정성을 지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4~7] (과학) 김수진, '광물과학'

이 글은 광물 내부의 원자 배열 양상이 가진 규칙성으로 인해 광물의 결정은 고유한 결정형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양으로 성장하더라도 그 면각은 항상 일정하다는 면각 일정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

4. [출제의도] 글의 개괄적 정보를 파악한다.

광물 결정형에 관한 설명은 1문단에서 찾을 수 있으나, 그 종류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면각 일정의 법칙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② 원자들의 규칙적인 배열 상태가 외부로 반영된 것이 결정면이므로, 이에 따라 결정의 면각이 일정하다는 것을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결정면의 성장 속도에 따라 결정면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4문단과 5문단의 설명을 통해 같은 광물의 결정이더라도 물질의 공급 환경에 따라 그 모양이 다르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3문단의 설명을 통해 스테노가 같은 광물의 결정일 경우 면각이 일정한 이유가 결정 내부의 규칙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추측을 입증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죽은 뒤 X선이 발견되고 나서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 스테노가 발견한 면각 일정의 법칙은 다른 모양의 수정 결정들이 지니는 공통점일 뿐 그것을 통해 결정 내부의 규칙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원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보기>의 결정 모양은 원래 정육각기둥의 수평 단면 모양인 정육각형 모양의 결정이 물질의 공급을 받아 성장한 결과라고 하였다. 4문단의 설명을 통해 이해해 본다면, <보기>의 성장한 결정 모양에서 a면이 b면보다 상대적으로 좁으므로 a면은 b면보다 물질의 공급을 더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지금까지와 같이 b면보다 a면으로 물질이 더 공급된다면 a면은 점점 좁아질 것이다. ③ 처음부터 모든 방향에서 물질이 고르게 공급되었다면 초기 결정 모양인 정육각형으로 성장했을 것이다. ④ 면각 일정의 법칙으로 인해 현재의 결정이 더 성장하게 되더라도 그 면각은 항상 같을 것이다. ⑤ 결정 모양이 변하더라도 결정 내부의 원자 배열이 가진 규칙성은 훼손되지 않는다.

7.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이 글에 사용된 '초석'은 비유적 의미로 사용되어, 어떤 사물의 기초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초석'과 의미가 같은 '주춧돌'이다.

[8~10] (현대시) (가) 서정주, '견우의 노래' / (나) 오세영, '모순의 그릇'

(가) 서정주, '견우의 노래'

견우와 직녀의 설화를 바탕으로 이별과 만남의 숙명적인 반복을 하고 있는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통해 사랑의 참된 의미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나) 오세영, '모순의 그릇'

일상적 사물인 그릇의 속성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인생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유추의 과정을 통해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8.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는 1연~4연까지는 '~위하여서는 ~가 있어야 하네'를 반복하며 이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나)는 1연과 5연에서 '흙이 되기 위하여 흙으로 빚어진'을 반복함으로써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9. [출제의도] 공간적 의미를 통해 시를 감상한다.

[C]에는 이별이 사랑의 과정임을 인식하고, 현실을 수용하고 있는 태도가 나타나 있으므로 현실과 미래에 대한 기약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다.

10. [출제의도] 유추를 통해 시의 의미를 이해한다.

이 시의 기본적인 발상은 유추에 있다. 그릇의 '깨어짐'과 인간의 '죽음'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그릇의 순환 과정을 통해 '모순'으로서의 삶의 본질을 드러낸다. 2연에서 '생애의 영광'에 해당하는 순간에 그릇이 깨어진다고 한 것이 '인간은 죽는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생애의 영광'을 인간이 추구할 가치로 파악한 ④는 적절하지 않다.

[11~14] (현대소설) 염상섭, '두 파산'

'두 파산'은 일제 잔재의 청산이라는 맥락에서 반민특위가 활약하던 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 해방 직후 남편이 정치 활동을 하는 정례 모친과, 그녀의 친구로서 일제 때 친일 행위를 한 남편을 둔 김옥임의 상반된 삶의 양식을 대비시킴으로써 두 가지 현실 적응의 방식을 보여 준다.

11.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제시된 지문의 앞부분에서는 옥임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을 당하고 난 뒤의 정례 모친의 내면 심리가 표현되어 있다. 지문의 뒷부분에서는 정례 모친에게 비난을 퍼부은 옥임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 있다. 따라서 서술자가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을 바꾸어 가며 인물들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출제의도] 공간적 배경과 관련해 작품을 이해한다.

㉠에서 정례 모친은 구경꾼들 앞에서 옥임에게 공개적으로 비난당한다. 정례 모친은 옥임을 향해 '늙은 영감에 던더리가 나가든 젊은 서방 하나 또 얻으려무나' 등의 말을 하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남들의 시선을 생각해 그러한 속내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례 모친의 속내는 구경꾼의 시선과 옥임의 비난을 피해 향한 ㉡에서 비로소 드러난다. 그러나 이것은 정례 모친의 심리에 해당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향해 표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3. [출제의도]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이거 미처나려나?'는 정례 모친이 친구 옥임의 지나친 행동을 '달래며 나무라'는 말이므로, 이를 '정신적 파산'으로 해석한 ③은 적절하지 않다.

14.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한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욕을 본 데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뒤에 가서 욕을 한다'는 의미이다. 옥임은 돈을 갖지 않는 정례 모친을 혼내려고 했지만 얼떨결에 젊은 서방과 관련해 정례 모친을 비난한다. 이것은 정례 모친이 돈을 갖지 않아서라기 보다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늙은 영감에 대한 짜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옥임은 문제가 있는 곳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애꿎은 정례 모친에게 공연한 화풀이를 했다고 볼 수 있다.

[15~16] (고전시가) 안민영, '매화사'

'매화사'는 1840년에 작자가 스승인 박효관의 산방을 찾아 함께 어울리며 책상 위에 놓인 매화에 붙여 노래한 8수의 연시조이다. 이는 작자의 많은 시조 작품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것으로, 맑고 섬세한 매화의 형체와 향기가 잘 묘사되어 있다.

15.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이 시에서는 매화의 모습에 대한 화자의 감흥을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16. [출제의도]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제3수>에서는 눈이 내린 상황과 황혼의 달이 뜬 상황에서 매화가 피어나 서로 조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눈과 황혼의 달이 조응한 후에 화자와 매화 사이에 조응이 일어난 것으로는 볼 수 없다.